

# 마킨(馬琴) 『진세쓰유미하리즈키(椿説弓張月)』의 장편화 분석

김학순\*

harksoon@hotmail.com

## 차례

1. 들어가기
2. 등장인물들의 정형화된 조형-「기슈류리단」(貴種流離譚)의 반복(反復)과 연쇄(連鎖)
3. 지리적 공간의 확대와 대외 인식
4. 선의 거대화-다메토모상(為朝像)의 거대화
5. 악의 거대화-괴물의 출현과 악인의 거대화(악한소설, 피카레스크 소설)
6. 삽화(에피소드)적 단편모노가타리-동물보은담과 계보
7. 맺는말

## 요지

本稿では、馬琴の『椿説弓張月』の長編化構想を作品の中で、繰り返されて定型化になったパターンを中心に論じてみた。それは貴種流離譚の反復と連鎖である。主人公の為朝の貴種流離譚は地理的な空間の拡大とともに反復されており、琉球の寧王女、息子舜天丸にもみえている。そのような固定されたパターンが長編プロットの骨格を作っており、その中で類型化された善と悪の存在が巨大化している。善を代表する為朝の中世武士的なイメージを極限まで肥大化し、海洋開拓者、様々な島を文明化する文化的英雄として描いている。それと同時に悪の動物、悪人矇雲の造型も拡大している。長編プロットの緊密な連携性を保つため、様々な一回、二回単位の短編物語を書いており、それは読者に大きな面白さを提供したのではないと思う。近代の作品は人物の心理描写、または情景描写によって書かれており、それに反する類型性を批判し続けてきた。だが、江戸時代では類型化された人物像が当然の事であり、馬琴は貴種流離譚の構造が空間の拡大と絡み合い、対外認識まで拡大している。それは現在でも生命力を持っている。このようなトライを踏まえながら研究することで、新しい馬琴の読本論が生じ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る。

**키워드** : 진세쓰유미하리즈키, 마킨, 요미혼, 류큐

\*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1. 들어가기

올해는 병술년 개(犬)의 해이다. 일본에서 개에 관한 이미지를 생각할 때 하치코(ハチ公)와 핫켄시(八犬士)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난소사토미핫켄텐』(南総里見八犬伝)은 핫켄시를 주인공으로 하여 28년간 쓰여진 에도 최고의 로망 소설이다. 이 작품을 집필한 바킨(1767-1848)은 일본최초의 본격적인 상업 작가이기도 하다. 바킨은 처녀작 『즈카이하타시테니부코젠』(尽用而二分狂言, 1796)을 발표한 이후 산토 교텐(山東京伝, 1761-1816)의 문하에서 80여 편의 기묘시(黃表紙)를 집필하게 된다. 산토 교텐의 문하에서 독립하여 그가 집필한 작품은 고칸(合卷)이 75여 편, 요미혼(讀本)이 40여 편에 이른다. 초기의 요미혼은 요미혼의 처녀작 『후쿠슈게쓰쓰키엔』(復讐月氷奇縁, 1804)과 같은 가타쿠우치모노(敵討物)가 주를 이룬다. 분카(文化)기 후반에 이르러 『산시치젠넌난카노유메』(三七全伝南柯夢, 1808)와 같은 고단모노(巷談物)가 주로 집필되었다. 그가 요미혼 중에서 가장 힘을 쏟았던 것이 후기의 시텐모노(史伝物)이며 『진세쓰유미하리즈키』는 그 효시적 작품에 해당된다.

『진세쓰유미하리즈키』는 전 5편(前編·後編·続編各六卷, 拾遺·殘編各五卷) 28권 29책으로 가쓰시카 호쿠사이(葛飾北齋, 1760-1849)가 삽화를 그렸다. 1807년(文化4)부터 1811년(文化8)까지 집필되었고 한모토(板元)는 히라바야시 쇼고로(平林庄五郎), 니시무라 겐로쿠(西村源六)이다. 「진제이하치로타메토모가이덴」(鎮西八郎為朝外伝)이라는 쓰노가키(角書)가 있고, 「진세쓰」(椿説)는 진기(珍奇), 진설(珍説)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유미하리즈키」는 명궁 다메토모를 지칭하는 것으로, 본래 『호겐모노가타리』(保元物語)에서는 다메토모의 사실적인 전기(伝記)에 기인하고 있지만 바킨은 사실에 나타나지 않은 전기(伝奇)를 다양하게 그려내고 있다.

문학사에서 요미혼은 산토 교텐의 『주신스이코텐』(忠臣水滸伝, 전편 1799, 후편 1801)을 경계로 전기요미혼(前期讀本)과 후기요미혼(後期讀本)으로 나뉘고 있다. 전기요미혼은 중국단편백화소설의 영향을 받은 괴담물이 많고 우에다 아키나리(上田秋成, 1734-1809)의 『우게쓰모노가타리』(雨月物語, 1776)가 대표작품에 해당한다. 후기요미혼은 장편백화소설의 기법을 수용하여 권선징악, 인과응보 사상을 이념으로 한 전기소설(伝奇小説)을 말한다. 이 두 장르는 이처럼 여러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무엇보다 단편과 장편이라는 구성적인 면에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장편이라는 점만을 가지고 후기요미혼의 특징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다. 무엇보다 독자에게 흥미와 재미를 주어야만 작품의 장편성은 진정한 생명력을 갖게 된다. 근대작품에서는 다양한 인물의 행동이나 심리 묘사, 여러 상황묘사 등을 통하여 독자들의 흥미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반해 바킨은 어떠한 기법을 사용하여 무대를 류큐(琉球)까지 확대해 가면서 독자들을 매료시킬 장편을 써 나갔을까? 본 논고에서는 이점에 주목하여 근대와는 다른 바킨만의 독자적인 장편화 구상 방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진세쓰유미하리즈키』는 구성상, 『호겐모노가타리』와 『스이코코덴』(水滸後伝)에서 여러 소재와 구성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아소 이소지(麻生磯次, 1946: 175)는 『에도문학과 중국문학』(江戸文学と中国文学)에서 본 작품이 『스이코코덴』에서 대부분의 구성법을 취하고 있다고 논하고 있고, 그것은 정설로서 인정되어 왔다. 하지만 오오타카 요지(大高洋司, 2000: 153)는 「고토 단지(後藤丹治)가 전력을 다한 고전대계판(古典大系版) 주석에서 스이코코덴의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한 부분도 지적되어 있지 않은 결과는 역시 중시해야할만 하지 않을까.(중략) 필자는 유미하리즈키 집필 되었을 시, 바킨의 손 밑에 스이코코덴은 놓여있지 않았었다고 상상한다. 류큐의 이야기는 스이코코덴이 없어도 충분히 그러한 것으로 집필이 가능했다」고 지적하면서 『진세쓰유미하리즈키』가 장편화 되어가는 구성적 방법을 작품에 인용된 고증(考証)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논의 시도를 기반으로 본 논고에서는 작품의 장편화 구상을 중국백화소설과의 영향관계가 아닌 작품 내부로부터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론에서는 앞에서 잠시 언급 하였듯이 본 작품은 근대소설과는 달리 다양한 개성의 인물들이 아닌 유형화된 인물들의 정형화된 행동적 패턴을 그리고 있다. 이에 지리적 공간의 확대와 그에 따른 대외 인식, 선과 악의 거대화 등을 통하여 장편모노가타리(長編物語)의 플롯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한 장편모노가타리의 플롯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됨과 동시에 매 회(每回) 재미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단편모노가타리(短編物語) 플롯의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1회(回) 또는 2회 정도가 하나의 단편적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 동물보은담과 계보에 의한 연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등장인물들의 정형화된 조형

### - 「기슈류리단」(貴種流離譚)의 반복(反復)과 연쇄(連鎖)

바킨의 작품에서 보이는 유형화된 인물상은 근대 작가들에 의해 비난 받아 왔다. 특히 쓰보우치 쇼요(坪内逍遙)의 『소설신수』(小説神髓)의 비판은 연구자들이 바킨 연구를 멀리 하는 결과를 낳기까지 했다. 그러한 바킨의 작중인물 성격의 유형성에 대해 나카무라 유키히코(中村幸彦, 1974: 176)는 「가장 비난받아온 것은 그 유형성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연극은 물론, 근세 소설에 등장하는 성격 중에 유형적이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한 점으로 바킨을 대변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것보다 근세는 작자도 감상자도 유형적인 인물에 만족해 왔다.(중략) 근세는 중앙집권이라 말하면서 봉건사회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봉건적으로 지역, 계급, 직업 등의 생활요소를 복합시킨 조건 하에서 어느 정도 획일적인 생활을 영위해 왔을 것이다. 생활이 획일적이면 심정, 사고도 또한 봉건적으로 획일화된다. 봉건 사회가 아직 중요하지 않았던 때에 사람들은 그 사회를 긍정해 왔을 것이고 인간은 그 획일적 즉 유형적인 생활을 긍정하고 그러한 것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파악하지 않았을까」라고 논하고 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유형적인 인물이 전근대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시대가 공유하고 인정해 왔던 인식의 사고를 파악하고 나서야 진정한 그 작품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본 논에서는 바킨이 작중 인물들을 어떤 방법으로 유형화시켜 근세 독자들에게 흥미를 주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작품은 주인공 미나모토노 다메토모(源為朝)의 영웅담이라 볼 수 있을 정도로 다메토모의 활약상이 전반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류큐에 이르기 전까지 이야기의 대부분은 다메토모라는 인물을 중심에 두고 전개 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불우한 생애를 살았던 영웅을 이야기 안에서 새롭게 재탄생시켜 기슈(貴種)로서 그려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메토모는 모모타로(桃太郎) 이야기와 같은 설화서술의 한 양식인 기슈류리단의 구조를 통하여 유형화 되어 가고 있다.

기슈류리단은 어린 신이나 영웅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 유랑하고 여러 시련을 거치면서 동물·여성 등의 도움, 재물의 발견, 지혜의 발휘 등을 통하여 곤란을 극복한 후 존귀한 지위에 오르거나 죽은 뒤에는 신이 된다는 설화의 한 유형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기슈류리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기슈는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추방당한

다. ②주변부에서의 역경을 극복한다. ③주변부의 여성과 결혼을 한다. ④주변부를 문명화 시키고 중심부로 귀환하여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이처럼 주변부로 추방되어진 기슈가 지방과 주변부를 문명화시키고 문화적 영웅이 되는 구조를 뜻한다.

본 작품은 이러한 기슈류리단에 의해 장편성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작품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내용을 좀더 쉽게 살펴보기 위해 해당되는 부분에 번호를 매겨 설명하였다. 다메토모는 신제이(信西)와 명궁에 대한 논쟁으로 신제이의 증오를 사게 되고 아버지 다메요시(為義)의 명에 의해 수도를 떠나 쓰쿠시(筑紫)로 도피하게 된다. 그 후 더욱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주변부, 이즈(伊豆)의 오오시마(大島), 뇨고시마(女護嶋)·오니가시마(鬼が島), 류큐로 흘러들어가게 된다.①

또한 다메토모를 중심으로부터 완전히 이탈시키기 위해 작자는 전편 2회에 「아케노야사메노토고스토크로시게스에」(詰朝乳母子須藤九郎重須季)를 등장시키고 있다. 쓰쿠시로 도피할 때 시게스에를 데리고 가지만 전편 3회에서 구슬을 얻는 대가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어린주군과 유모는 떨어질 수 없는 강한 관계로 그의 죽음은 중심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주변부로 흘러들어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의 죽음 직전에 류큐 출신의 「기헤이지」(紀平治)라는 이인(異人)을 등장시켜 주변부의 범위를 이 세계(異世界)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다메토모는 쓰쿠시에서 악한 원숭이를 죽이고, 오오시마에서는 포악한 정치를 행했던 다다시게(忠重)를 벌하고, 류큐에서는 모운국사(蒙雲国師)의 요술에 의해 난관에 빠지기도 하지만 결국 악인들을 전부 정벌한다.② 이처럼 악을 전부 정벌하며 자신에게 처해진 시련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또한 자신이 도피하거나 추방당했던 주변부 출신의 여성들, 무사의 딸인 시라누이(白籬), 간신의 딸인 사사라에(齧江), 섬사람의 딸 뇨코(長女) 등과 결혼하여 자녀들을 출산하고 있다.③ 주변부의 여성들과 결혼함에 있어서 계급의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정실인 시라누이와는 혼인 전에 에피소드 이야기를 두어 다른 두 여성과의 결혼에 차이점을 두고 있다.

오오시마, 뇨고시마·오니가시마에 나침반을 이용한 해양술의 사용, 목축과 농업의 장려, 남녀가 함께 사는 것을 금지한 악습의 폐지 등 섬들을 문명화 시키고 있다. 최후에는 류큐를 정벌하여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고 하늘로 승천하고 있다.④ 이처럼 기슈류리단의 구조가 여러 주변부를 무대로 하여 반복되고 있고 이러한 반복과 연쇄는 본 작품의 장편화 플롯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 기슈류리단의 구조는 다메토모뿐만 아니라, 류큐의 네완노(寧王女), 시라누이의 사이에서 태어나 류큐의 왕이 되는 스테마루(舜天丸)에게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 의해 작중 인물들은 유형적인 전형성을 갖게 된다. 다음에서는 네완노와 스테마루에 관한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류큐의 네완노는 모운 국사와 주후키미(中婦君)의 모함에 의해 수도를 떠나 주변부의 바닷가로 추방당한다.(①) 슬픔의 3년 세월을 보내고 다메토모의 구슬에 의해 수도로 돌아가게 된다.(②) 시라누이의 영혼이 들어와 목숨을 부지하게 되고 다메토모와 함께 하늘로 승천한다.(④) 기슈류리단의 구조를 본 뜬 기쵸류리단(貴女琉離譚)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남성이 아닌 왕녀의 유배와 역경의 극복, 승천하는 구조는 매우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기쵸류리단이라는 다소 변용된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정실의 시라누이에서 태어난 스테마루는 다른 자식들과는 달리 기슈로서 탄생되고 있다. 그는 기헤이지와 함께 고히지마(姑巴嶋)로 표류하게 된다.(①) 그곳에서 사슴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고 새의 털을 이불로 삼아 동굴에서 생활하며 고향과 부모 생각에 힘든 나날을 보낸다. 그 후 아버지 다메토모와 재회하고 모운국사 퇴치 방법을 신선에게 들어 모운국사를 퇴치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한다.(②) 고히기(小萩)를 왕비로 구메코(久米子)를 후궁으로 삼고(③) 류큐왕에 즉위하게 된다.(④) 후반부는 스테마루의 기슈류리단 구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다메토모 이외에도 기쵸(貴女)인 네완노, 계보에 의해 가장 우선권을 갖게 된 장자(長子)로서의 기슈인 스테마루의 기슈류리단을 통하여 본 작품은 큰 플롯의 골격을 갖게 된다. 그와 함께 매우 정형화된 플롯의 구조 속에서 작중인물들도 유형화되어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본 작품의 인물들에게 근대적 작품에서 보이는 심리 묘사나 상황과의 갈등 등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전체적인 장편의 플롯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유형화된 인물들의 정형화된 패턴에 의해서이고 그 방법으로 기슈류리탄을 이용하고 있다. 본 작품에서 유일하게 그 유형성을 이탈하고 있는 것이 구마키미(阿公)라는 인물이다. 그 유형성을 이탈시키는 원인은 혈연관계에 의한 것으로 결국 악인이었던 그녀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결로 자신의 대가를 치루고 있다. 인물 성격의 유형성은 바뀌고 있으나 권선징악과 인과응보라는 요미혼 주제에는 여전히 반하지 않고 있다.

바킨에게 있어서 주인공 다메토모의 기슈류리단 구성은 첫 장편 요미혼을 가능하

게 한 힘이 된 동시에 쓰보우치 쇼요에 의해 전근대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바킨은 주인공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인물들에게도 그 구조를 적용시켜 가면서 복수 인물들의 정형화된 패턴을 통해 장편화를 가능하게 하고 작품의 흥미를 주고 있다. 그 정형화 된 틀 안에 선과 악을 대비 시키고 반드시 선이 승리한다는 단순할 것 같은 진리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흥미 있는 면이 아닐 수 없다. 유형화된 선과 악의 인물들과 그들의 정형화된 패턴에 여전히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몇 십 년간 인기를 누리고 있는 드라마인 미토고몬(水戸黃門)이나 일본의 장편 애니메이션을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리라 본다.

### 3. 지리적 공간의 확대와 대외 인식

앞에서 살펴본 기슈류리단의 구조는 쓰쿠시, 오오시마, 노고시마, 오니가시마, 류큐순으로 점차 지리적인 공간을 확대해 가면서 반복되어져 가고 있다. 작품의 장편화를 위해 작자는 중세적인 종교적 지리관을 초월하여 작품의 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 공간의 확대는 이 작품이 집필된 시기의 공간 인식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 노구치 다케히코(野口武彦, 1992: 9)는 『에도와 악』(江戸と悪)에서 「첫 번째는 쇠국일본으로부터 공간표상의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미 국제정세로부터 고립해 있을 수 없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지리학, 천문학, 의학 등의 분야에서 패러다임 변혁이 일어났다」고 공간표상의 변화를 논하고 있다. 히노 다쓰오(日野竜夫, 2004: 39)는 『에도인의 유토피아』(江戸人とユートピア)에서 「막말이 다가오면서 봉건체제의 막다름이 만성적 또는 점증적인 질서의 이완, 인심의 불안정을 자아내, 한편으로는 전혀 모르는 세계가 바다 저편의 이국이라는 물리적 실제의 모습을 빌려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봉건질서의 붕괴와 그에 따른 이국을 통한 공간 인식의 확대를 말하고 있다. 두 논문은 근세 후기의 공간 인식 변화를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본 작품에서도 보이고 있다.

먼저 류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작품에서 류큐는 일본국(日本국)에 대해 또 다른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그것은 전편 2회의 류큐 출신 기헤이지의 출생에 관한 부분부터 보이고 있다. 「저는 기헤이지라는 사냥꾼입니다. 조부는 원래 류큐국(琉球

国)의 사람이지만 일년 표류하여 그 배가 쓰쿠시에 도착하여 결국 일본에 머물며 히고(肥後)의 기쿠치(菊池)에서 봉공을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부분을 보면 류큐가 류큐국이라는 국가로서 인식되고 있다. 일본 이외에 또 다른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대외인식의 확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류큐가 국가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전편 5, 6회에서 서술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류큐에는 왕이 존재하고 있으며 「선조의 왕이 이무기를 죽여 류(琉)와 큐(球)라는 두 개의 구슬을 얻어 류큐가 되었다」는 개국신화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그 두 개의 구슬은 옥쇄의 역할을 하고 있어 그 구슬을 소유하는 자가 왕의 지위에 오를 수 있다.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 다메토모가 네완노에게 받게 되는 「류큐이모」(琉球芋)와 같은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산물이 생산되고 있다. 거기에 일본과 류큐는 조공과 왕신이 왕래하는 관계가 아닌 다메토모가 류큐에 건너갈 때 상인으로 분장하였듯이 교역과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중세까지의 하나의 중심부만을 가지고 있던 인식에서 탈피하여 중세까지 인식되어 왔던 중심부와 대비되는 또 다른 중심부의 공간이 존재한다는 인식론의 확대를 가지고 왔다. 그로 인해 대외 인식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류큐로 건너가기 이전에 다메토모는 여러 주변부를 복속시키고 있다. 특히 무대를 섬으로 확대해 감에 따라 그 주변부는 또 하나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주인공은 기슈류리단 구조에 의해 섬을 문명화 시키고 그 섬의 주인이 되고 있다. 그 섬을 하나의 국가 단위로 경영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의 확대가 수도로부터 단순히 거리가 멀어져 간다는 문제가 아닌 수도로부터 확대된 공간 안에 또 다른 국가가 존재한다는 대외 인식을 만들어 내고 있다. 즉 주변부가 개척되고 문명화 되어 또 다른 하나의 중심부를 만들고 있고 하나의 완성된 국가로서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마지막이 류큐이며 그 공간적 확대도 류큐에서 끝나고 있다. 이처럼 지리적 공간의 확대와 기슈류리단 구조가 상호 연관하면서 본 작품은 장편화 되어가고 있고 그 공간 인식의 확대에 의한 대외 인식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 4. 선의 거대화-다메토모상(為朝像)의 거대화

미나모토노하치로 다메토모(源為朝)는 『호겐모노가타리』에 의하면 이즈의 오오시마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본 작품에서는 류큐에 건너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이야기로 재구성하여 박명한 영웅의 일생을 작품에 그려진 무대의 확대와 함께 새로운 영웅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다메토모 전설은 류큐 최초의 정사를 기록한 『주잔세이칸』(中山世鑑, 1650)에서도 볼 수 있으며 라이 산요(賴山陽)의 『일본외사』(日本外史)의 「미나모토씨의 자멸」(源氏の自滅)부분에도 쓰여 있다.

「말하기를, 천자인 나에게 오오시마를 하사하겠다고. 이미 주변의 다섯 개의 섬을 병합하였다. (중략) 수년 후, 가이노스케(狩野介)에게 칙명하여 그를 공격하게 하였다. 다메토모 활을 쏘아 그 배를 침몰시키고, 그리하여 스스로 피하여 류큐로 건너갔다고 전한다」.

이처럼 근세의 다메토모가 류큐로 건너갔다는 전설은 에도 시대에도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져 왔고 작자 역시 그것에 입각하여 다메토모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본 작품에서 류큐로 건너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메토모상을 극대화, 거대화시켜 가고 있다. 그러한 다메토모상의 거대화는 공간의 확대와 뒤얽히어 인물과 공간의 동시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선을 대표하는 젠다마(善玉)로서 다메토모상의 확대는 무사로서의 중세적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여 문명과 문화를 전파하는 문화적 영웅, 또는 개척자의 모습으로까지 확대되어 그려지고 있다. 그러한 주인공 이미지의 확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무사적 이미지의 극대화이다. 『호겐모노가타리』에서 보이고 있는 중세적 무사 이미지를 기반으로 신체 능력을 더욱 극대화 시키고 있다. 두 번째로는 주변의 섬을 개척해 나가는 해양개척자의 이미지이다. 마지막으로 섬의 미개한 문명을 개화시키는 문화적 영웅의 이미지이다.

『호겐모노가타리』의 다메토모는 신장이 7척이나 되는 거인으로 왼팔이 오른팔에 비하여 4촌(寸, 12센티)이나 긴 속사의 명궁으로 소개되고 있다. 무위가 매우 뛰어난 중세적 무사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전 작의 다메토모상을 기본 축으로 하여 작자는 전편 1회 첫 부분에 다메토모를 중세적 뛰어난 무사로 등장 시키고 있다. 그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메토모는 지용무쌍하고 신장이 7척, 들개의 눈과 원숭이의 팔꿈

치를 가졌으며 힘이 남들보다 매우 뛰어나고, 활의 명수이며 속사에도 숙련되어 있다」

이어서 명궁논쟁으로 신제이에 의해 활의 과녁이 되지만 손과 입으로 화살을 잡는 등 극대화된 신체능력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무사적 능력의 확대는 본 작품을 통하여 무수히 나타나고 있다. 전편 3회의 이무기 퇴치, 11회의 요괴의 간파와 퇴치, 14회의 맨손으로 들소를 제압하는 모습, 후편 26회의 멧돼지를 발로 차서 제압하는 모습, 습유 54회에서는 신통력으로 모운국사의 요술을 간파하고 잔편 61회에서 요괴 지토세(千歳)를 퇴치하고 있다. 이러한 강한 동물, 괴물, 요괴 퇴치의 방법으로 무사의 극대화 된 신체 능력이나 신통력 등을 이용하고 있다. 이점은 중세적 무사인 명궁의 이미지에서 더욱 극대화된 무사의 이미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뜻하고 있다.

오오시마로 유배된 다메토모는 그 후 주변의 여러 섬들에 흥미를 갖게 되고 뇨고시마를 시작으로 스스로 새로운 섬들을 찾아 가고 있다. 유럽 대항해시대의 콜롬버스와 같이 다메토모 역시 해양개척자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한 개척자의 모습은 전편이 끝나고 후편 시작의 16회에서 명확히 보이고 있다. 「섬의 우두머리를 불러 이 외에도 건너가볼 만한 섬이 있느냐 라고 물으시니」, 같은 회에 「다메토모는 뱃길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스스로 나침반을 지키면서」라는 부분을 보면 적극적인 해양 진출과 나침반을 이용하는 해양개척자의 모습이 더욱 뚜렷이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문명을 전파하는 문화적 영웅의 모습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목축과 농업의 장려이다. 전편에 등장하는 노카제(野風)와 야마오(山雄)라는 늑대를 자신이 키워가며 축산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앞서 말한 손으로 제압한 들소 역시 목축을 하게 된다. 또한 오오시마, 뇨고시마는 곡식이 열리지 않아 매우 빈곤한 생활을 영위해 왔으나 다메토모의 농업 장려에 의해 문명화 하고 있다. 뇨고시마와 오니가시마의 남녀가 함께 살지 못한다는 악습 등을 폐지하며 새로운 사회 질서마저 창조하고 있다. 이처럼 지리적 공간의 확대에 의해 뛰어난 무사적 이미지에서 문화적 영웅으로까지 확대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 5. 악의 거대화-괴물의 출현과 악인의 거대화 (악한소설, 피카레스크 소설)

선을 대표하는 다메토모상이 지리적 공간의 확대와 함께 거대화함에 따라 선과 대비되는 악의 존재들 역시 비약적으로 거대화 되고 있다. 나카무라 유키히코(1974: 177)는 이러한 악의 묘사를 「비쇼넨로쿠(美少年録)와 핫켄텐으로 대표되는 뚜렷한 악의 묘사가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도 이 유키하리즈키이다. 시텐노쇼토이로쿠(四天王剽盜異録)는 그러한 선구적인 악한소설이지만 아직 충분한 성공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논하면서 유키하리즈키를 바킨의 요미혼 창작 기에 있어 악한소설(피카레스크 소설)의 효시작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악의 묘사는 젠다마의 다메토모를 거대화 시켜 묘사함에 따라 대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권선징악의 사상성을 갖고 있는 요미혼의 장편화 구조를 위한 선의 확대와 거대화는 악의 확대와 거대화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다메토모상에 융합해 가면서 악의 존재들이 생겨나고 소멸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메토모의 무사적 이미지는 극대화 되어 가고 있다. 제일 먼저 다메토모와 대립하는 악의 존재는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신제이다. 하지만 이것은 처음의 스토리 전개를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점차 다메토모와 싸움을 하게 되는 아쿠다마(悪玉)들은 비약적으로 거대화한 동물이나 괴물, 요괴, 이인(異人)들이 주를 이룬다. 그러한 아쿠다마들은 두 분류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다메토모가 자신의 신체 능력을 초월해 비대해 나가듯이 악한 동물들의 비대화이다. 그 처음으로 등장하는 동물이 전편 3회의 이무기이다. 이무기의 크기는 「두께는 장목(楠)줄기에도 뒤떨어지지 않고, 길이는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고 이무기의 목에는 늑대의 머리를 물고 있다」라며 비대화시켜 그려내고 있다. 또한 4회에 등장하는 악한 원숭이 역시 「이 원숭이는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서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커져 지금은 여덟, 아홉 살의 소년과도 비등할 정도로 보인다」라며 거대화시켜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비대화된 동물을 등장시켜 다메토모의 신체 능력의 거대화와 대칭시키면서 주인공의 이미지 확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작품 후반부의 다메토모의 숙적이 되는 모운 국사의 비대화이다. 전편 6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모운국사는 요술을 사용하는 욕심이 많고 자신에게 반하는 자

에게 재앙을 내리는 신선으로 묘사 되고 있다. 그러한 모운국사의 모습이 비대화 하는 부분이 속편 36회 부분이다. 「코는 높고 말라 뼈가 앙상한 이진, 홍색의 옷은 다 헤져있는 것을 입고 있고 손에는 녹이 쓴 금종을 잡고 있고(중략) 인간인가 하고 보면 인간이 아니고, 귀신인가 하고 보면 귀신도 아니다. 사람들 점점 더 신기해하며 이것은 도대체 라며 응시하고 있다. 그 때 이진 하품을 하며 감고 있는 눈을 딱하고 뜨니 눈동자의 빛이 사람들을 쏘며 왼손 오른손을 둘러보며」라고 이진의 모습으로 비대화 한 모운국사를 나타내고 있다. 그 후에도 다메토모의 신체적 능력의 확대와 더불어 모운국사도 다양한 요술을 부리고 있다. 화공으로 다메토모를 괴롭히고 여러 요술을 쓰는 등 모운의 신체 능력 역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확대된 악한은 류큐의 수도에서 유배되어 류큐의 주변부에서 고난을 겪다 다시 류큐 중심으로 들어가 권력을 잡게 된다. 앞서 본 기슈류리단의 구조가 악한에게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점에서 악한소설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모운국사의 퇴치를 위해 다메토모와 스테마루가 함께 싸우고 있다. 작품 후반부의 모운국사는 주인공을 초월하여 스테마루까지 함께 연합하여 싸워야 할 정도까지 확대되고 있다. 결국 잔편 65회에서 모운은 스테마루가 신선에게서 배운 방법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의 죽음으로 모든 악에 대한 징벌은 끝이 나게 된다.

## 6. 삽화(에피소드)적 단편모노가타리-동물보은담과 계보

본 작품은 유형화된 인물들의 정형적인 패턴에 의해 장편화 되고 있다. 기슈류리단과 지리적 공간의 확대 등이 그러한 장편 플롯을 가능하게 하는 구상 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공간의 확대에 의한 선과 악의 확대, 거대화에 의해 또 다른 장편으로서의 플롯 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러한 장편으로서의 플롯을 유기적으로 이어가며 독자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 본 작품에는 1회 또는 2회가 한 편이 되는 무수한 단편모노가타리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장편으로서의 플롯과 단편으로서의 플롯 구조를 갖기 위해 등장인물들 역시 플롯 캐릭터와 라운드 캐릭터로 나뉘어 지고 있다. 다메토모와 스테마루, 기헤이지 등은 플롯 캐릭터로서 작품 전체에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카제, 야마오, 원숭이, 부토다(武藤太), 시게스에 등의 수많은 라운드 캐릭터

터들은 단편의 이야기가 끝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단편이야기 안에서 소멸하게 된다. 이러한 삽화적 에피소드 이야기는 독자에게 흥미를 주는 동시에 장편의 플롯 구조 사이사이를 이어주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단편으로서의 플롯 중에서 동물보은담과 계보에 의한 연결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작품에는 총을 다하는 동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전편 2회에 등장하는 노카제와 야마오라는 늑대를 비롯하여 4회에서 악한 원숭이를 죽이는 학의 이야기는 단편의 이야기로 전체의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생략되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장편구성의 긴밀성과 원활함을 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플롯이다. 류큐에 건너가기 위한 구슬을 얻기 위해 야마오의 죽음이라는 설정이 필요했고, 시라누이와의 결혼을 위해 악한 원숭이를 처벌 할 학의 설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처럼 장편 플롯이 원활하게 이어지는 매개체로 동물보은담의 단편이야기 플롯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본 작품에는 무수한 계보관계가 그려지고 있다. 다메토모와 혈연에 의한 계보, 야마오와 같은 계보인 노카제가 시라누이를 구하고 죽음에 이르는 등 여러 방법에 의한 계보적 이야기로 장편 플롯을 더욱 긴밀하게 이어주고 있다.

## 7. 맺는말

이상과 같이 본 작품의 장편화 구상을 장편으로서의 플롯과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단편으로서의 플롯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등장인물들의 성격이나 행동은 매우 유형화 되어 있고 그러한 유형성은 기슈류리단이라는 하나의 정형화된 패턴을 만들고 있다. 또한 작품의 지리적 공간의 확대에 의한 기슈류리단의 반복과 대외인식의 확대, 선과 악의 거대화 등은 본 작품 장편화의 큰 골격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확대와 대외인식의 욕구는 집필 되었던 시대상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본 작품이 이처럼 어떠한 구상에 의해 장편화 되어 갔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그 장편 플롯의 구성을 탄탄히 하고 독자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 수많은 라운드 캐릭터와 단편의 삽화적 이야기들을 그려내고 있다. 그 중에서 동물보은담과 계보에 의한 연결성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바킨의 유형화된 등장인물의 성격은 근대에 들어와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하지

만 나카무라 유키히코가 말했듯이 그 시대에는 그러한 유형화된 인간상에 독자들은 감동하고 재미를 느꼈던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유형성의 비판을 잠시 접어두고 어떠한 구상에 의해 작자가 작품을 장편화해 갔는지에 초점을 두고 논해보았다.

선과 악의 전형적인 캐릭터, 권선징악의 구조는 영화 「반지의 제왕」을 보면 여전히 현재에도 이용되고 있다. 「반지의 제왕」 1, 2, 3편이 영화진흥사업 10위 안에 전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기술적 화면의 화려함과 별개로 유형화된 인물들과 선이 승리한다는 플롯에 대한 갈망이 현재의 우리들에게 흥미를 주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진세쓰유미하리즈키』의 성공 이후, 바킨은 수많은 장편 요미혼과 장편 고칸을 집필해 간다. 본 작품의 구상과는 다른 구조, 또는 공통된 구조들을 취해 가며 장편화해 갔을 것이다. 이번 논고를 바탕으로 하여 『난소사토미하켄텐』의 장편화 구조도 분석한 후, 바킨이 집필한 장편요미혼 구상이 근대의 장편화 구상과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한 근대 작품으로 『난소사토미하켄텐』보다 1년 더 길게 쓰여진 「나카자토 가이잔」(中里介山)의 『다이보사쓰토게』(大菩薩峠)를 함께 분석해 보는 것을 이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後藤丹治(1962) 『椿説弓張月』, 岩波書店.  
 平岩弓枝(1981) 『椿説弓張月』, 学習研究社.  
 高藤武馬(1977) 『椿説弓張月』, 筑摩書房.  
 永積安明・島田勇雄(1961) 『保元物語 平治物語』, 岩波書店.  
 麻生磯次(1946) 『江戸文学と中国文学』, 三省堂.  
 頼山陽著 頼成一・頼惟勤訳(1976) 『日本外史上』, 岩波書店.  
 野口武彦(1992) 『江戸と悪』, 角川書店.  
 日野竜夫(2004) 『江戸人とユートピア』, 岩波書店.  
 『馬琴』(1974) 有精堂.  
 『馬琴』(2000) 若草書房.